
헝가리의 언어 정책

박수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헝가리어는 시베리아 동쪽 우랄 산맥에서부터 수천 년에 걸쳐 민족 이동을 하면서 9세기 말 중유럽의 한복판에 정착한 마자르 족의 언어로서, 유럽어들에 둘러싸여 섬과 같이 존재하는 언어이다.¹⁾ 헝가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에 대해 “헝가리어만큼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잘 짜여 있으며 정확하고 섬세한 언어는 없다.”라고 자랑한다. 또한 “모든 학문을 헝가리어로 할 수 있으며, 어떤 학문 분야라도 헝가리어로 책이 출판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헝가리어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헝가리어가 저절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단어를 만들고, 문법을 다듬어 전파한 결과라는 것을 헝가리인들이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Balázs Géza, 2001: 10).

1) 헝가리어는 계통적으로 우랄 어족에 속하며,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이다. 헝가리 영토에 1000만 명, 슬로바키아에 69만 명, 루마니아에 200만 명이 있으며, 그 밖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중부 유럽 카르파티아 분지의 중앙에 있으며, 여섯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서쪽으로 오스트리아, 북쪽으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리고 동쪽으로 루마니아와 접하고 있다.

헝가리어에 대한 자부심은 근대 언어 개혁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헝가리 언어 정책, 언어 육성 그리고 언어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 헝가리에서 헝가리어를 보호하고 가꾸고 전파하는 일은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헝가리 언어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 헝가리 언어 개혁의 성과가 현대 헝가리어에 미친 영향과 언어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 헝가리 언어 개혁과 언어 정책

헝가리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의식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루터의 종교 개혁과 인쇄술의 발명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대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된 언어 규범의 마련과 어휘 확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어는 다른 소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의 그늘에 가려진 가정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구어일 뿐이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와 19세기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헝가리에서도 모국어에 대한 자각과 민족의식이 싹트게 되는데, 이는 헝가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치 투쟁과 맞물려서 언어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

헝가리 언어 개혁 운동의 핵심은 어휘를 확대하고 언어 규범을 정비하여 헝가리어를 합스부르크 제국의 제2 언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

2) 헝가리 언어 개혁은 1784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요제프 2세 황제가 제국의 언어를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제정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을 통합하는 이 법령은 당시 헝가리 귀족들의 반발로 취소되었고, 이때 헝가리 대학에 최초의 헝가리어과가 생긴다. 이로써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제국 내에서 언어권을 위해 투쟁한 최초의 민족이 되었으며, 이것이 언어개혁 운동으로 전개된다(박수영, 2005: 6).

해 커진치(Kazinczy)를 중심으로 하는 신어주의자(neológusok)와 전통주의자(ortológusok)로 일컬어지는 언어학자, 문법학자들이 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독일어화에 대한 저항과 같은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헝가리어가 18세기 유럽의 기술, 학문,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새로운 지식과 현상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대한 자각에서 단어 만들기(szócsintan)에 열중했다.³⁾ ‘헝가리의 언어 정책’은 헝가리어가 186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에서 헝가리 왕국의 공식 언어가 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 헝가리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언어 개혁 운동은 헝가리 학술원이 주도하는 공적인 언어 정책의 차원으로 옮겨 갔다.

2.1. 헝가리 고유 어휘의 창조

언어 개혁자들은 단일 어형 어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 접사와 합성어 성분들을 창조하고자 했다. 조어의 원칙은 헝가리어 고유의 언어 재료를 찾아내거나 새로 만들어 내어 헝가리 고유 어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잊힌 옛 헝가리 어휘를 다시 살리기, 지방어를 중앙으로 불러올리기, 새로운 파생 접사 만들기, 기존의 전통과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 분해와 단어 절단, 축약법과 같은 특이한 조어 방법 등을 사용했다.⁴⁾ 이렇게 만들어진 어휘들은 헝가리 고유 어휘에 속하는데, 이는 헝가리 전체 어휘 가운데 원시 우랄 어에서 유래한 어휘나 외래어 차용 어휘가 아닌 헝가리어 자체의 내적 발전 과정에서 생긴 말로서, 언어 개혁 시대의 신조어들이 이에 속한다. 헝가리 전체 어휘를 헝가리 어휘와 외

3) 언어 개혁의 내용은 어휘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외래 어휘를 헝가리어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헝가리어에 “그리스어의 우아함, 라틴어의 품위, 이태리어의 열기와 프랑스어의 경쾌함, 그리고 영어와 독일어의 힘”을 불어넣는 것이었다(Kazinczy, 1819: 211, 박수영, 2005: 7에서 재인용).

4) 언어 개혁 시대의 조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2001)을 참고할 것.

래 어휘로 구분해서 사전에 있는 모든 어근, 기초어만을 대상으로 할 때 헝가리 어휘는 55%이고, 외래 어휘는 45%이다. 헝가리 어휘 중 원시 우랄 어휘가 100개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헝가리 고유 어휘가 헝가리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글에 사용된 어휘를 대상으로 하면 헝가리 어휘는 88%, 외래 어휘는 12%로서, 헝가리 고유 어휘는 헝가리 언어생활 대부분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개혁의 신조어가 없었다면, 현재의 헝가리어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olnai, V., 1929: 55-56, 박수영, 2005: 8에서 재인용).

이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의 수는 약 40,000개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 신어들의 정착 과정을 통해 많이 사라지고 변형되어, 현대 헝가리 문학어, 과학 용어, 표준어에는 약 10,000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들의 생명은 전통과 규범 그리고 규칙보다는 시간과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소멸된 것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하고 뒤틀린 조어법에 의한 단어들이 현대 헝가리 어휘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예도 있다. 언어 개혁자들이 만든 우스꽝스러운 단어들은 지속적으로 자주 사용함으로써 어색함을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헝가리 단어가 되었다. 언어 개혁자들은 당시 외래 어휘의 사용에 대하여 “편안함을 좋아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며, 게으르기 때문에 헝가리어의 적합한 단어를 만들기보다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핑계이며, 과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외래 어휘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Kazinczy, 1819).”라는 인식 아래, 언어 기호의 자의성을 십분 활용해서 신조어를 창조해 냈다(박수영, 2005: 8-9).

2.2. 언어 정책과 헝가리 학술원

헝가리 역사에서 1825년~1849년까지를 개혁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

대를 여는 해인 1825년에 헝가리 학술원이 설립되었다. 신어주의자들이 대거 헝가리 학술원에 들어가면서, 헝가리 언어 개혁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헝가리 학술원의 언어 정책은 전문 용어와 문어를 검토하고, 언어 지식이 없이 억지로 만들어진 파생어를 정리하며, 헝가리어 문법과 특히 통사 구조를 해치는 외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위 신전통주의를 표방했다. 1905년 헝가리 언어학회(Magyar Nyelvtudományi Társaság)가 창설되고, 1931년에는 학술원 산하 헝가리 언어위원회(MTA Nyelvtudományi Bizottság)가 설치되면서, 헝가리어 학교 문법과 정서법, 사전 편찬 등 헝가리어 육성을 위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 학술원의 언어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로서 《헝가리어 지킴이(Magyar Nyelvőr)》는 1872년에, 《헝가리어(Magyar Nyelv)》는 1905년에 창간되었는데, 현재까지 헝가리어 전문 학술 잡지이자 대중 잡지로서 학문적 권위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100년 이상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⁵⁾

헝가리 언어 개혁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한 방법은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헝가리어 관련 행사, 말하기·맞춤법 대회를 개최하거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근대 언어 개혁 운동을 기념하고 헝가리어 대중 교육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alázs Géza, 2001: 267).

- 헝가리 언어 주간(매년 4월)
- 커진치 대회(초등부, 중학부, 대학부)
- 커진치 상패-전국 초등학생 ‘아름다운 헝가리 말’ 대회⁶⁾

5) 이 두 종류의 잡지는 학교를 다닌 헝가리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헝가리의 서점 대부분의 진열대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헝가리 언어학 잡지이다.

6) 발음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헝가리 작곡가 코다이 줄탄(Kodály, Zoltán)에 의해 ‘아름다운 헝가리 말(szép magyar beszéd)’ 운동이 일어났다.

- 중학생 ‘사랑스러운 우리말 사용’ 대회
- 사범 대학생 ‘아름다운 헝가리 말’ 대회
- 너지 벨러(Nagy J. Béla) 맞춤법 대회
- 임플롬 요제프(Implom József) 맞춤법 대회
- 시모니 지그몬드(Simonyi Zsigmond) 맞춤법 대회
- 코슈트(Kossuth) 사범대학생 웅변대회
- 초등학교 언어 가꾸기 대회
- 커진치 날
- 서르버스 가보르(Szarvas Gábor) 언어 가꾸기 날

3. 현대 헝가리 언어 정책

근대 언어 개혁의 전통은 사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의 헝가리어 육성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헝가리어 자체의 힘을 키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헝가리인들에게 헝가리어는 유럽의 어느 언어 못지않게 풍부하고 세련된 언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1990년대 초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과 2004년 유럽 연합 가입 이후 헝가리어의 표준어 문제와 현대화 그리고 외국어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유럽은 유럽 연합이라는 하나의 거대 국가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공존하는 곳으로서 개별 언어의 표준화와 통일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유럽의 큰 언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대의 개방된 경제 환경과 정보 통신 혁명으로 새로운 개념이 유입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3.1. 헝가리어의 표준화와 현대화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 살아 온 중부 유럽에서 언어와 정치의 결합은 근대 민족 국가 형성 과정에서 필연적이었다. 언어 이외에는 정체성을 찾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없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합된 헝가리에서 헝가리인의 정의는 ‘헝가리어를 말하고 헝가리인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된다. 이를 언어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헝가리 언어 정책의 기본은 헝가리의 언어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헝가리어는 부다페스트에 사는 중산층 교양인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köznyelv)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사회적 헝가리어들과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그어진 정치적 국경에 의해 분리된 국경 밖 헝가리어 변이형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헝가리어, 루마니아 헝가리어를 두루 포괄하는 ‘중심이 여럿인 헝가리어’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다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카르파텐 분지에는 수십만의 이중 언어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에서는 헝가리어 고유의 규칙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경 밖 헝가리어 변이형 또는 방언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헝가리에는 대중 매체의 국가적 독점과 ‘단일 중심주의’가 깨지면서, 사실상 ‘다중심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 가운데 헝가리어를 하나의 통일된 표준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이 있는 ‘다중심 언어’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Szépe, György, 2001: 203).

헝가리어의 현대화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개혁을 뜻한다. 모국어는 사회적 접촉의 가장 보편적 수단이므로 디지털 정보 혁명 시대에도 과학과 정보 분야의 새로운 개념들, 외래어를 헝가리어로 바꾸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여러 계층의 국민들에게 언어를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며, 헝가리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이중어를 하는 개인, 이중어 가정, 이중어 집단의 언어생활에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학술원 헝가리어 위원회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헝가리어 ‘현

대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 용어 사전(Kövegy Mandel Zolnai, 1996), 인터넷과 일반 대중의 속어 사전(Nyíró, 1997) 등이 편찬되었다. 또한 디지털 언어 개혁 신조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컴퓨터 기술 용어의 헝가리어화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헝가리어 단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의 일상생활과 전문 분야에서 쉬운 언어적 표현을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정책, 언어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학자들이 응급 구조(gyorssegély)를 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Balázs, Géza, 2001: 100).

3.2. 외국어 교육과 헝가리어 보호법

외국어에 대한 정책은 외국어 교육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헝가리어를 외국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족들 간의 실질적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외국어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데, 헝가리어와 같이 작은 언어 사용 국가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틀 속에서 동등한 자격과 경쟁력을 가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위한 고등 교육 제도의 통합을 꾀하고 있는데, 유럽의 큰 언어(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을 학습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⁷⁾ 외국어 교육과 함께 외국어로부터 헝가리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2001년의 '헝가리어 보호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헝가리의 자본주의 체제 이행 이후 물밑듯이 들어온 국제적 소통어,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가 된 영어와 이를 비롯한 유럽의 큰 언어들로부터 헝가리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그 내용은 상업

7) 유럽 연합의 언어 정책과 유럽 연합 고등 교육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박수영(2005)을 참고할 것.

적 광고 문구와 선전 구호 등은 헝가리어로 써야 하며, 옥외 간판, 상점 내부와 외부 진열장의 안내 문구,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은 헝가리어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장소, 모든 공적 업무에 사용되는 사유지, 사유 건물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에서 관련 안내문은 헝가리어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상업 시설들의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은 최소한 헝가리어 번역을 똑같은 비중으로 첨가하거나 헝가리어로 바꿈으로써 헝가리 국민들의 정보 수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간판 및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⁸⁾

4. 맺는 말

19세기에 언어는 밖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한편 안으로는 민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21세기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해야 하는 시대이다. 자본과 지식 정보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특히 유럽에는 정치적 국경마저 사라져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이 만나는 시대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어를 조정하고 통일하려는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제 ‘헝가리의 언어 정책’이 아니라 헝가리인의 언어문화로서 ‘헝가리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국경 밖 헝가리어의 연구와 지원, 헝가리어 현대화의 문제 그리고 모국어로서의 헝가리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헝가리어 정책의 주 내용이 될 것이며, 이는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의해 구체화될 것이다.

8) <http://oldwww.uni-miskolc.hu/city/Olvaso/ujholnap/januar/balazs.html>, 언어법, 2001년 법령 96(XCVI), 상업적 광고와 상점 간판, 그 밖의 공공 안내물을 헝가리어로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참고 문헌

- 박수영(2001), 근대 헝가리 언어 개혁과 신조어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26집, 137-173.
- 박수영(2005), 근대 헝가리 언어 개혁의 전통과 21세기 헝가리 언어 정책, 《동유럽 연구》 제14권, 3-23.
- Balázs Géza(2000), *Lehetséges nyelvi szabványok*(실현 가능한 언어 표준화), Budapest.
- Balázs Géza(2001), *magyar nyelvstratégia*(언어 전략), Budapest.
- Nador Orsolya (2002), *Nyelvpolitika*(언어 정책), Budapest.
- Candelier, M., Batley, E., Hermann-Brennecke, G. Szépe, György(1999), Nyelvpolitikai irányelvek a jövő évezred számára Idegen nyelvek az oktatásban(새 천년 언어 정책의 기본 원칙), *Nyelv, Hatalom, Egyenlőség*, 251-271.
- Szépe György(2001), *Nyelvpolitika múlt és jövő*(언어 정책의 과거와 미래), Pécs, Iskolakultúra.
- Tolnai, Vilmos(1929), *A Nyelvújítás*(언어 개혁), Budapest.